

---

# 문화의 변화와 소수언어의 변화

다니엘 누첼 글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교수  
이문옥 옮김번역가

---

## 1. 서론

세계의 종족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제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상황도 논의하기 위하여, 제주도 국립 민속 박물관에서의 최근 심포지움에는 언어학 자들과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며, 이렇게 사멸 위기에 처한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라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심포지움에서 나는 세계 속의 언어 사멸 현상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논문에서 다룬 요점을 개괄한 것이며, 내가 제기한 문제점 중 몇 가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본 논문은 전 세계적인 언어 사멸의 심각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언어 사멸의 과정을 조사하며, 세계의 많은 소멸 언어에 대한 구조적 쇠락의 만연에 대해 탐구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언어 사멸의 영향에 대한 논의와, 많은 종족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쇠락의 악순환을 반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으로 끝을 맺는다.

## 2. 언어 사멸의 정도

언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사멸하고 있는데, 언어학자들은 언어 사멸이 언어학 분야와 인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위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호주 토착어 연구에서 디슨(1984:54)은 와룽구 언어의 마지막 남은 두 사용자인 피터와 그의 누이 노라의 인터뷰에 실패했다고 기록한다.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그 해 크리스마스 날 피터가 노라와 술에 취해 다투다가 노라의 머리를 쳤다는 소식이 새어 나왔다. 그녀는 곧 사망했으며 피터도 몇 달 후에 사망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는 수백 개나 있다. 사실, 언어 사멸과 그 언어의 마지막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는 드문 현상이 아니다. 언어 변이가 일어났거나 진행 중인 무수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한 가지 언어에 대한 선택은 대체로 다른 언어의 종말을 함의한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로서, 한 언어의 소멸은 대개 그 언어 사용자들의 문화 전통의 일부 혹은 전체가 덩달아 사라지는 결과로 귀납되는데, 비교적 흔한 현상이다.

크라우스(1992)는 사멸하고 있는 언어의 수를 믿을 만하게 추정하였는데, 사멸 위기의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도 대체로 수용하는 그 수<sup>1)</sup>를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다. 미국만 해도 소멸해 가는 토착어가 전체 언어의 33%, 즉 900개의 언어 중 300개라고 크라우스는 추정한다. 호주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여, 250개의 토착어 중 90%가 소멸되고 있고 대부분이 '절멸일보 전(크라우스 1992:5)'이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황도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소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언어들, 그리고 그 언어들 이 어떻게 그런 위기에 처했는지에 대해 알고 있고, 이러한 종족어가 아직 사용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미루어, 크라우스는 다가올 미래에 사멸 위기에 처할 언어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인류 언어의 90%

---

1) 네틀과 로메인(2000), 크리스털(2000)의 최근 논문도 이것을 증명한다.

가 사멸 혹은 파멸할 것이 그럴싸한 산출”이라고 결론짓는다(1992:7).

### 3. 언어 사멸의 본성

#### 3.1. 언어의 점진적 사멸

언어 접촉 상황에서 언어 사회가 더욱 지배적인 언어(B 언어)로 점차 이동해 갈 때, 버림받은 언어(A 언어)는 대체로 점진적인 사멸을 맞게 된다. 전환이 필요한 시기 동안 이중 언어의 중간 단계가 그 사회에 대두된다. 초기에는 각 언어가 서로 분리된 영역에서 사용된다. 점차로, B 언어는 A 언어에 대해 이전에 보류해 둔 영역을 접수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A 언어는 그 사회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게 된다.

점진적인 언어 사멸 중 문서로 가장 잘 작성된 두 사례들은, 그리스의 알바니아 방언인 아르바니티카와 동 서덜랜드의 게일 어이다. 쇠퇴하는 이들 두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 사멸의 세 가지 현상이 드러난다고 사세(1992a)는 주장한다. 첫째, 언어 영역 외의 문화적, 사회적, 민족 역사적, 경제적 요소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B 언어를 위해 A 언어를 포기시키려는 공동체 내의 압력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외적인 요소들은 언어 행동의 변화라는 두 번째 현상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동 서덜랜드의 게일 어에 대한 도리안의 연구(1981)는, 어떻게 어부들이 게일 어를 포기시키려는 사회 경제적 및 정치적인 압력 하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게일어로 말하면 치욕의 낙인이 찍혔다. 결국, 게일 어 사용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언어가 영어보다 열등하다고 믿게 되었다.

게일 어는 자체의 공적인 영역을 상실했고, 오직 본거지에서만 사멸의 비운을 피할 수 있었는데, “엄격하게 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위상 낮은 언어의 경우에는 제도상의 어떠한 지원도 없기 때문에, 본거지 영역이 언어의 지속에는 분명히 중요하다”(도리안, 1981:82). 언어 행동의 결정적인 변화는 게일 어 방언에서 시작되었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언어를

전수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러한 부정적인 언어 태도는 B 언어로 이동하는 사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언어 행동 변화의 정착 상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세(1992a:14)는 아르바니티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그는 아르바니티카에 대한 태도를 '모순된 태도'라고 지칭한다), 그 언어 화자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를 '추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들은 자녀들에게 언어 전수를 중단했으며, 그 언어는 사멸의 비운을 맞게 되었다.

### 3.2. 준화자와 구조적인 쇠락

새로운 세대로의 전이를 차단당할 때, A 언어의 위상은 가장 극단적으로 위협을 받으며, A 언어가 종종 구조적으로 쇠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그 언어를 완전히 배우지 않게 되며, A 언어를 가끔 듣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언어 기량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다. 결론은 공동체 내에서 A 언어를 지속적으로 능통하게 쓰는가인데, 가정에서 그 언어를 완전히 습득한 사람들은 완전히 능통한 화자인 반면, 부분적으로만 그 언어를 습득한 사람들은 소위 '준화자'이며, 능숙도에 따라 A 언어를 다양하게 말한다. 준화자의 능숙도는 그 화자의 언어학적 재능, 그 언어에 대한 노출 정도, 준화자가 A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언어에 능통한 연장자의 존재와 그 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소멸의 마지막 단계에서, 언어 사회는 거의 전부 준화자로만 구성된다(사세, 1992b).

준화자에 대해 사세는 다음과 같이 쓴다(1992a:15~17): 우리는 언어 사멸의 과정 중 아마도 중요한 시기인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다. 이 기간은 '언어 쇠락'이라는 현상이 특징이다. 언어 쇠락은 소위 준화자, 즉 언어 전이의 중단으로 초래되는 화자 세대의 전형적인 심각한 언어학적 붕괴로 정의된다. 그들 구조에는 극히 결함이 많으며 시제, 상, 서법과 같은 중요한 문법적 범주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들 범주가 지배 언어에 나타나도 마찬가지이다. 그 언어는 종종 형태와 기능을 연결할 때 혼합어 같은 구문의 간소

화 및 강한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그것들은 A 언어의 음운 체계의 특징을 거의 터득할 수 없으며, 그 발음에서 극심한 변화를 보여 준다. 쇠락 중의 언어는 적절히 이해되는(구조화된 부호) 의미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단어와 단어 형태의 부정형 덩어리, 고정적인 문장과 어구, 공식적인 표현, 관용어 및 속담 등이며, '덩어리'로 학습되는데 그 형태는 불완전하게 알려져 있으며, 그 기능은 불충분하게 이해된다. 대화에서 사용된 경우, 이러한 언어학의 구제도는 고정된 구문적인 기준 없이 무작위의 선형 순서로 함께 취합된다.

비록 사세가 위에서 기술한 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쇠락을 보여 주는 유형학적 언어 연구가 많이 있다. 모건과 베니악(1989)은 웰랜드(캐나다) 프랑스어의 지시 대명사 체계의 쇠락에 대해 말하며, 버게린과 버게린(1977)은 튜바투라발(멕시코)의 관계절 사용에서의 변화에 대해 준화자에 의한 불완전한 습득의 탓이라고 한다. 슈미트(1985)는 소멸해 가는 드르발어를 사용하는 젊은이가 더 이상 능동격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서덜랜드의 게일어에 대한 도리안(1981)의 연구는 사멸하는 언어 내의 쇠락을 가장 상세하게 보여 준다. 준화자들은 더 이상 게일어의 성 체계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여성 대명사가 있어야 하는 곳에 남성 대명사가 나타나고, 여성 지소적 접미사가 남성 지소적 접미사를 대신하여 부정확하게 나타나며, 형용사에 대한 성 표시가 종종 잘못되어 있다. 게다가 준화자들은 여격과 호격에 대해 부정확한 형태를 보여 주며, 복수 형태에 곤란을 겪는다. 어떤 준화자도 게일어에서 전적으로 원래대로의 언어 체계를 보여 주지 않으며, 시제 형태와 서법, 즉 조건문과 수동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 3.3. 쇠락 혹은 차용?

A 언어의 쇠락과, B 언어로부터의 차용 때문에 나타났거나 사라졌던 요소들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사세(1992a, 992b)는 주의를 주는데, 언

어 접촉 상태에서는 건전한 언어조차 어휘 항목뿐 아니라 구조까지 차용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접촉한 상태의 언어들은 ‘두 언어의 형태통사론적인 시스템 사이의 일대일 관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어떤 이상적인 목표(실제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를 나타내며, 특히 “동일 범주 시스템 경향과 이러한 범주를 표시하는 구조적 유사 수단에 대한 경향이 존재한다.”라고 사세(1992b:64)는 지적한다. 문학에서 그러한 차용의 예는 무수한데, 예를 들어 평이한 펜실베이니아 독일어가 그러하다(로우텐, 1988). 사세(1992b:64)와 토마슨과 코프먼(1988:215 ff.)은 터키에서의 그리스어 예를 제시하는데, 문법적인 성을 없앴으며 그리스어 구문은 이제 터키의 것을 모델로 한다. A 언어가 B 언어의 패턴을 모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마 쇠락보다는 차용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내부 요인으로 A 언어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쇠락의 탓이 아니며 언어 접촉의 결과는 더욱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예는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서 사용했던 소멸 상태의 독일어 방언으로, 영어에 그 영역을 거의 다 뺀 헨스빌 동 프랑코니아어(HEF)이다.<sup>2)</sup> 표준 독일어와 달리 이 방언에서는 ‘숫자 2’를 뜻하는 단어인 츠바(tsvaa)가 성에 따라 어미가 변화될 수 있다. 남자는 츠비(tsvée), 여자는 츠부(tsvuu), 중성은 츠바(tsvaa)를 쓴다. 그러나 HEF 사용자 다수는 더 이상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으며, 츠바(tsvaa) 형태는 이제 세 성별이 다 쓸 수 있다. 이러한 평균화는 처음에 형태상의 쇠락(혹은 영어와의 접촉)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서양의 건너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어의 기본 방언에도 츠바(tsvaa)의 성 구별이 없으며, 그 방언은 결코 사멸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 언어 접촉이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HEF와 영어의 접촉, 그리고 여러 기본 방언과 표준 독일어의 접촉), 여기서 형태적인 쇠락은 작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A 언어가 B 언어에 있는 범주를 상실하기 시작할 때, A 언어는

2) 그러나 헨스빌 동 프랑코니아어는 ‘정상’의 점진적인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다. 이 방언을 쓰는 준화자들의 부재로 인하여, 소멸해 가는 방언이 형태적으로나 구문적으로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졌다. 뉘첼(1998)을 참고하라.

아마 쇠락의 진행 과정에 있을 것이다. 사세(1992b)는 아르바니티카를 지적하는데, 이것은 그리스 어에 있는 범주를 상실했지만 그 손실을 메우지 못했다. 예를 들어 상의 구별이 상실되었으며, 관사가 사라졌거나 부정확하게 사용되었다. 그리스 어와 정확히 대응하는 동명사도 상실되었고, 성 일치도 더 이상 준수되지 않는다. 준화자들은 거의 보충형을 사용하지 않으며 유사성은 '뿔뿔이 흩어진다'(1992b:71).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불규칙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있어야 하는 곳에서는 부족하다(3.2.에서 논의한 캠벨과 문첼 1989를 참조하라). 요컨대, 아르바니티카는 자체의 표현력을 상실했으며 사멸이 임박했다.

### 3.4. 쇠락과 어휘 차용

어휘 차용이 소멸되어 가는 언어 내의 구조적인 쇠락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헤이스빌 동 프랑코니아 어(HEF) 사용자들은 영어에서 차용을 많이 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인 refrigerator(냉장고)와 car(자동차)는 독일어 방언에서도 흔한 단어인데, 그 방언이 1850년대에 인디애나 주로 들어왔을 당시 이 물건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reek(개천)이나 fence(울타리) 같은 차용어에서 보이듯이, 현대 발명품들의 이름만이 헤이스빌의 방언에 들어온 게 아니다. 그 방언이 사멸 위기에 처하기 훨씬 전부터 HEF에 들어왔으며, 그러한 차용은 언어 접촉의 당연한 결과로 여길 수 있다.

인디애나 주에서 현지 조사를 하던 중, 나는 HEF 사용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구문이나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휘 자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장 보수적이고 유창한 사용자들도 특정 항목을 독일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내게 자주 물었다. 도리안(1981:145) 또한 그녀가 아는 유창한 사용자들의 어휘 보유에 대한 문제점을 기록하지만, 그러한 화자들의 “어휘 회상력은 문법적 보수성과 별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즉, 문법에 대한 제어력이 없는 준화자들만이 어휘 항목을 기억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차용조차도 소멸해 가는 언어의 쇠락 증상은 아마 아닐 것이다. 여담으로, 오늘날 사멸 위기의 언어가 아닌 많은 언어들로의 광범위한 차용(대개 영어로부터)도 비슷한 사례이다. 예를 들어, 현대 독일어에 사용되는 무수한 영어 어휘 항목들이 쓸데없거나 불필요하거나 성가시기까지 하지만<sup>3)</sup>, 그 단어들이 독일어가 쇠락하거나 폐기될 위기에 있음을 암시하지는 않는다(비록 이와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sup>4)</sup>

#### 4. 무엇이 위태로운가?

과학적인 요인들만이 모든 언어의 보존을 정당화시킴을 언어학자들은 다 알고 있다. 인간 언어의 구조와 관련한 우리의 이론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고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언어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0세기에 사라진 서북 캅카스 언어인 우비크의 마지막 사용자를 인터뷰한 언어학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면, 우리는 한 언어에 그렇게 대량의 지음 목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아프리카어에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연구가 몇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하스펠매스, 1993).

다음 세기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대부분의 언어들도 서로서로 큰 유형적 혹은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보발직과 펜살피니(1996:18)가 지적하듯이, 이것은 언어학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유형적인 다양성이 '문법의 보편성과 언어 변이의 가능한 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네틀과 로메인(2003:13)도 동의를 하지만, 그들 또한 비언어학자까지 설득시킬 수 있는 사멸 위기 언어의 보존에 대한 논의를 제한한다. 언어학적 다양성은 생물학적 다양성과 직접 연관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3) 독일어 속의 영어에 대한 문제는 문헌에 널리 다루어져 있다. 공간상, 여기서 이 주제에 관해 길게 토론할 수가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세계적인 확산과 증족어 소멸 사이의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사실 두 분야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데, 특정 거주지에서 함께 진화를 거쳐 우연히 연결되었을 수도 있다. 우리의 연구는 생물학적 다양성 분야와 최상급의 언어학적 다양성 분야들 사이의 상당히 주목할 만한 연관성을 보여 주었으며, 우리가 생물언어학적 다양성이라고 지칭하는 공통 저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저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가장 큰 생물언어학적 다양성은 토착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 언어의 60%를 사용하며 생물학적 다양성에서 가장 풍요롭게 생태계 일부를 지배하거나 보존한다.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곳에서는 언어 또한 위기에 처해져서, 종과 언어들에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들은 결론짓는데, 우리가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은 점점 더 제한적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네틀과 로메인(2000:16)은 다음의 두 가지 예를 든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중 하나인 미크맥 어에서, 나무들은 가을에 바람이 불며 그들을 스칠 때 내는 소리에 따라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해진 후 한 시간쯤에 바람이 항상 특정한 방향에서 불어올 때이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나무가 75년 전 특정한 이름을 가졌었다고 한 연장자가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면, 이러한 용어들은 그 시간대에 산성비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표지로 볼 수 있다. 1894년에 태어난 한 팔라우인 전통 어부는 3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물고기 중에 이름을 붙였으며, 전 세계의 과학 문헌에 기술되었듯이 그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종의 물고기들이 달의 영향을 받는 산란 순환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델비(2003:213)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곧 없어질 언어들로부터 비롯된' 중요한 의학적 지식에 대한 사례의 목록을 만들었다. 이 논문의 착수 시점에, 나는 언어 사멸이 대개 그 언어와 연관된 대부분 혹은 모든 문화적 관점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는 그와 연관

된 언어가 더 이상 그 종족 공동체의 일부나 전체에 의해 사용되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아파치 언어를 못하는 한 아메리카 원주민이 자신을 아파치라고 정당하게 생각하더라도, 그의 조상 언어에 대한 불능은 그의 민족적 문화적 유산의 여러 요소들을 접하는데 한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도리안은 추노다(2006:165)와의 개인적인 통화에서 “X 언어를 못하는 사람도 X인이긴 하지만, X어 능통자인 그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와는 달리 빈약한 X인이다.”라고 정당하게 주장한다.

또한 미튼(1999:2)이 쓴 것처럼: 한 언어의 상실은 그 유산으로부터 민족의 명확한 이탈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의미하며, 인간 경험의 이해에 대한 대안 방식을 일별할 수 있는 기회의 손실을 나타낸다.

분명 언어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를 반영하며, 개개인의 언어는 그의 틀을 세계에 나타낸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유지하며 전할 권리가 있다(예를 들어, 그들의 문화적, 그리고 지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로). 도덕적, 과학적, 그리고 미적인 이유로 우리는 모든 언어의 생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5. 보존을 위한 전략

사황이 걸린 상황에서, 언어학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언어들을 사멸로부터 구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언어학자들에게는 선택이 될 수 없다. 크리스털(2000:145)은 그러한 언어학자를 환자의 미래에 대한 관심 없이 의료 자료를 모으는 의사와 적절히 비교한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치학자와 언어학자 등 외부의 도움으로, 사멸 위기의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보존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제안하는 크리스털(2000:127 ff.)에게 다시 돌아가 보자. 만약 그 언어 사용자가 지

배 사회 내에서 그들의 명성을 증대시키고, 지배 사회에 비례하여 그들의 부를 증가시키며, 지배 사회의 견지에서 그들의 합법적인 권력을 증대시키며, 교육 제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으며, 전자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멸 위기 언어가 진보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크리스털은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읽고 쓰는 능력과 사멸 위기 언어의 표준 문자 체계에서 언어의 생존에 대한 열쇠를 간파한다.

크리스털의 제안 중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좀 더 용이하게 적용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언어 사용자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그들 언어의 운명을 책임질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하며, 그들의 언어나 문화의 수명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가 정부의 보호 하에서의 재정적 지원이나 법규 같은 외부 지원에만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네틀과 로메인(2000:177)이 제안하는 것처럼, '언어 존속에 대한 상향식 접근', 예를 들어 사멸 위기의 언어를 살리기 위한 민중 운동이 있어야 한다. 국가 및 국제적인 관심도 좋지만 현지 활동이 필수적인데, 가정에서 쓰지 않는 언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집안 영역은 보호되어야 한다. 화자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자연 서식지가 보존되어야 한다. 네틀과 로메인(2000:179 ff.)은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던 지역적 주도의 예를 제시한다. 하와이의 풀뿌리 조직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언어 수업 참석까지 하는 하와이의 몰입교육 유치원 설립을 담당하고 있었다. 외부인의 도움으로 브라질의 카라자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가 모국어로 초기에 학습하여 나중에 포르투갈 어로 학습하는 학교를 건립했으며, 카라자의 역사 및 문화는 교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들은 외부 사회로부터 '유입되지' 않은, 그들 자신의 마을에서 훈련받은 지역민이다.

사멸 위기 언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은 여전히 인위적인 환경이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그 언어 사용에 솔선수범해야 하며, 이중 언어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일랜드 어를 배운다면 영어에 덜 숙달될 것이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한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인데도, 널리 퍼져 있으며 언어 보존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중 언어로 인해 자녀와 지역 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부모들이 알게 만드는 것은 언어학자들의 몫이다.

풀뿌리 접근을 지지하는 반면, 네틀과 로메인(2000:200 ff.)은 사멸 위기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하향식' 노력을 간과하지 않는다.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위한 것처럼, 사멸 위기의 언어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분명 유용할 수 있다.

저사용(적게 사용하는) 언어 유럽 사무국(European Bureau of Lesser Used Languages)과 메르카토르 네트워크 같은 유럽 연합의 프로그램이 소수 언어 사용자들에게 유익함을 입증했다고 그들은 지적한다. 그들은 또한 유네스코의 언어 권리에 관한 보편적 선언을 지지하는데, 여기서 정부는 그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소수의 권리를 보증하고, 그들 영토 내에서의 언어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 것을 동의한다.

언어 활성화에 관한 여러 책들이 지난 2년 사이에 나왔으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책들은 그레노블과 웨일리(2006) 및 추노다(2006)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으며, 언어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생각들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 가장 위대한 자원 중의 하나인 인간 언어들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낭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

## 참고 문헌

- Bobaljik, Jonathan David and Rob Pensalfini(1996), Introduction. In Papers on language endangerment and the maintenance of linguistic diversit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28, ed. by Jonathan David Bobaljik et al., 1~24. Cambridge, MA: MITWPL.
- Campbell, Lyle and Martha C. Muntzel(1989), The structural consequences of language death. In Investigating obsolescence: Studies in language contraction and death, ed. by Nancy C. Dorian, 181~19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ystal, David(2000), Language Dea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by, Andrew( 2003), *Language in Danger: The Loss of Linguistic Diversity and the Threat to Our Fu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orian, Nancy(1981), *Language death: The life cycle of a Scottish Gaelic dialec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_\_\_\_\_ (1982a), Language loss and maintenance in language contact situations. In *The Loss of Language Skills*, ed. by Richard D. Lambert and Barbara F. Freed, 44~59. Rowley, MA: Newbury House.
- \_\_\_\_\_ (1982b), Linguistic models and language death evidence. In *Exceptional Language and Linguistics*, ed. by Loraine K. Obler and Lise Menn, 31~48. New York: Academic.
- Grenoble, Lenore A. and Lindsay J. Whaley(2006), *Saving Languages: An introduction to language revitaliz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artin(1993), In Memoriam: Ubykh(Tefvik Esen).  
[www.circassianworld.com/tevfikesench.html](http://www.circassianworld.com/tevfikesench.html).
- Krauss, Michae(1992), The world's languages in crisis. *Language* 68: 4~10.
- Louden, Mark L(1988), *Bilingualism and syntactic change in Pennsylvania German*. PhD diss., Cornell University.
- Mougeon, Raymond and Eduoard Beniak(1989), Language contraction and linguistic change: The case of Welland French. In *Investigating obsolescence: Studies in language contraction and death*, ed. by Nancy C. Dorian, 287~31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ttle, Daniel, and Suzanne Romaine(2000), *Vanishing Voices: The Extinction of the World's Languag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sse, Hans-Jrgen(1992a), Theory of language death. In *Language death: Factual and theoretical explor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East Africa*, ed. by Matthias Brenzinger, 7~30. Berlin: Mouton de Gruyter.
- \_\_\_\_\_ (1992b), Language decay and contact-induced chang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Language death: Factual and theoretical*

- explor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East Africa, ed. by Matthias Brenzinger, 59~80. Berlin: Mouton de Gruyter.
- Schmidt, Annette(1985), The fate of ergativity in dying Dyirbal. *Language* 61: 378~396.
- Thomason, Sarah Grey and Terrence Kaufman(1988), *Language contact, creolization and genetic linguis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sunoda, Tasaku(2006), *Language Endangerment and Language Revitalization: An Introduc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 Voegelin, C.F. and F.M. Voegelin(1977), Is Tbatulabal de-acquisition relevant to theories of language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43: 333~336.